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교회교육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04장 다같이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신명기 6장 1-3절 인도자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설 교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2.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꿈의 정원과 청년부에게 은혜로운 여름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

신명기 6:1-3

노포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노포 음식점의 특징은 맛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약간의 운도 따라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한결같은 그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합니다. 재료를 고르고 다듬고 손질하는 일에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전통의 방법을 살려 그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아는 손님은 그 음식점을 올 때마다, 음식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섞어가며 식사를 하니 맛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며 노포식당은 그 역사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 우리 중앙교회도 115년의 긴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역사를 마주 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15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100년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분들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은 100미터 달리기하듯이 달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그가 열심히 달려온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함으로 100년의 일부를 만들었고, 또 그 여정은 짧은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여러 인생들이 함께 엮이며 만들어 온 계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어제 달린 부모와 믿음의 선배의 열매입니다. ► 이 달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녀와 함께 달리는 달리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치라”, “행하라”, “지켜라”는 명령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인생에 있어 믿음의 달리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행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며 우리는 먼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녀 앞에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부모들은 신앙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최우선이 예배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던 대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며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단 6:10).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많은 이유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신앙적 영향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규칙적이고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나 그 외의 시간이 자유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뛰어노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영적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해야 합니다. 2절에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노출되게 하여야 합니다. ►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더욱 믿음 위에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가르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